

해외 한국관련 정보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동에 대한 탐색적 연구

An Exploratory Study of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of Overseas Users for Korea-related Materials

권 나 현 (Nahyun Kwon)*

서 지 영 (Jiyoung Suh)**

초 록

본 연구는 해외에서 한국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정보이용의 장애요인들을 탐색적으로 고찰해 보고자 하였다. 세계 52개국에서 총 382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와 26명이 참여한 심층면담, 그리고 설문응답자 중 50명이 참여한 후속설문조사 데이터를 수집,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정보이용자들은 정보요구와 정보추구행동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는 한류문화향유, 한국어학습, 한국학연구 그룹으로 범주화될 수 있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자료 확충과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요구가 매우 높았고, 언어, 기술, 정책적 장애로 인한 제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정보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 한국관련 자료를 한 곳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 주는 종합포털시스템 구축과 통합참고정보서비스 운영을 제안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and information use of people who seek information on Korea overseas. A total of 382 survey responses from 52 countries and in-depth interview data from 26 participants were collected and analyzed. As a result, the respondents were categorized into three groups, namely Hallyu culture enjoyment, Korean language learning, and Korean studies research groups, by their unique information needs and information seeking behaviors. Pandemic boosted the demand for digital data expansion and digital archiving efforts. Various information problems caused by language, technology and policy obstacles were revealed. Findings suggest strategies to assist Korea-related information users.

키워드: 해외 한국자료,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해외 정보이용자, 한국학, 한류, 한국어학습
Information Needs, Information Seeking Behavior, Overseas Users, Korean Materials, Hallyu, K-culture, Korean Studies, Korean Language Learning

* 명지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nkwon@mju.ac.kr) (제1저자)

** 연세대학교 문화비평학 연계전공 강사(jysuh3@hanmail.net) (교신저자)

논문접수일자 : 2022년 6월 2일 논문심사일자 : 2022년 6월 2일 게재확정일자 : 2022년 6월 13일
한국비블리아학회지, 33(2): 121-144, 2022. <http://dx.doi.org/10.14699/kbiblia.2022.33.2.121>

* Copyright © 2022 Korean Biblia Society for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1. 서론

세계 속 한국의 위상은 역사상 전례가 없을 정도로 높아졌다. 특히 문화 전반에 걸친 수요는 가히 르네상스기를 맞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세계에 보급하기 위해 2012년 설립된 세종학당(2022)은 급속히 성장하여 2022년 현재 전세계 82개국에 234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한국어능력시험(2022) TOPIK 지원자도 지난 20년 동안 140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전 세계 한국어학, 한국학 전공을 개설한 대학은 2020년 기준으로 107개국 1,395개교에 달했다(이영준, 2020, 33).

한국의 경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세계 각국과의 교역이 증가하면서 한국어 학습자가 급증하였을 뿐 아니라, 1990년대 말 이후 디지털 뉴미디어 시대의 도래와 함께 한류가 확산되면서 한국 문화 콘텐츠를 스스로 누리는 소비자가 증가하게 되었다. 이와 함께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획득하게 되는 동기나 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한류의 확산을 기점으로 세계 각지의 사람들이 개인적 향유를 목적으로 한류 관련 정보와 콘텐츠를 탐색하고 소비하며 이를 위해 자기 주도적으로 한국어 공부를 선택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영준(2020, 35)의 분석에 따르면, 한국에 대한 관심은 한류문화 향유에서 시작하여 한국어 학습, 그리고 한국학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발전적 연계성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발전 과정의 각 단계에서 제한된 지식정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질의 정보원 습득은 필수적이다. 한류 확산과 활발해진 한국학연구에 힘입어 그간 여러 방면에서 이 변화를 포착하려는 학술

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김용락 외, 2020; 김혜진, 2020; 김훈태, 2020; 장성일, 2018). 그러나 이러한 정보 수요 환경의 변화 속에서 해외의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구체적인 정보요구나 정보이용 특성을 파악하고자 한 연구는 아직 제대로 수행된 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류, 한국어, 한국학을 포괄하는 한국 관련 관심 영역 전반에 걸친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직접적인 목소리와 경험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 수요와 정보문제 해결 과정에서의 제 특성을 탐색적으로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문헌 조사를 통해 해외 한류 문화와 한국학연구에 대한 수요 환경을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학연구 또는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들을 규명해 보았다. 본 연구 결과는 전 세계의 다양한 정보 환경에서 한국 관련 자료를 찾고자 하는 해외 이용자들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료 지원서비스 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해외 한국자료 수요 환경 분석

2.1 해외 한류 정보 수요 동향

1990년대 말 이후 '한류'라 지칭되는 한국 대중문화 콘텐츠의 확산은 한국에 대한 세계적

관심의 증가를 가져왔다. 한류 문화의 양산과 향유 및 소비를 둘러싼 환경의 변화는 해외 한류 정보 수요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의 연차보고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의 『한류백서』, 한류관련 정보와 동향정보를 제공하는 잡지 『한류 나우』 등을 살펴보면 이러한 변화를 쉽게 감지할 수 있다.

Hong(2019)의 분석에 따르면, 2000년대 초기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서 한국 드라마의 성공으로 한류의 탄생과 발전의 시발점이 되었던 한류 1.0 세대를 시작으로, 2011년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한류 3.0 정책’을 발표하면서 한류를 국가의 문화산업에 포함시켰고, 현재는 다중채널 네트워크(Multi Channel Networks, MCN)와 같은 IT 기술을 통한 ‘K-style’의 확산에 정부와 미디어의 역할이 더 커진 한류 4.0 세대를 맞고 있다.

이러한 맥락 속에서 해외에서 한류의 소비와 연계된 한국에 대한 관심과 정보이용은 기존의 문헌이나 여타 인쇄자료에 의존했던 방식을 넘어 인터넷을 기반으로 배포되는 각종 전자자료와 미디어 플랫폼을 통해 전파되는 영상자료, 음원자료, SNS와 가상공간에서의 커뮤니티 활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국 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서 최근 실시한 한국 한류실태 조사에 의하면, 드라마나 K-pop 등의 한국 동영상 콘텐츠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으로 접하는 비율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주로 이용하는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은 ‘YouTube’로, 전 동영상 콘텐츠 분야에서 이용률이 80% 내외로 가장 높으며, 다음으로 ‘Netflix’가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음악’의 경우에도 ‘온라인·모바일 플랫폼’이 1순위 경로이며, ‘YouTube’, ‘Spotify’,

‘Facebook’ 순으로 응답자들이 이용한다고 조사되었다(김용락 외, 2020). 영화의 경우, 이제 TV 시청과 극장 관객 수가 정체되는 반면 유튜브, VOD, OTT 서비스의 이용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정보 환경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 세계적인 추세로 파악된다(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91).

드라마와 K-pop을 통해 한국문화를 접했던 외국의 젊은이들이 콘텐츠 소비를 넘어서 한국어와 한국 전반에 대해 보다 깊이 이해하려는 단계로 나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어 교육과정에서 대중문화 콘텐츠를 통해 다양한 상황에 적절한 언어 사용 용례를 습득하며 살아있는 언어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한류 콘텐츠는 효율적인 한국어 학습을 위한 도구로 널리 활용되고 있었다(김훈태, 2020). 이렇게 한류 콘텐츠가 한국에 대한 정보와 지식의 확보, 어학 능력의 획득, 문화전달의 도구로 기능하는 현상은 한국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연구, 즉 해외 한국학의 발전과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2 해외 한국학 연구 동향

지난 100여 년 동안 해외 지역에서 한국학은 점진적으로 발전해왔다(이정현, 2009). 주목되는 바는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한류의 확산이 해외 한국학 학술영역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이다. 1960년대 제1세대 한국학 연구자들에 의해 한국학의 초석이 마련된 이래(윤은하, 2013), 한국학은 급속히 확산되는 한류 문화콘텐츠, 즉 K-컬처를 학술적 대상으로 삼거나, 초국가적인 차원에서 한국 문화콘텐츠를 향

유하는 소비자, 한류 팬덤 현상, 한류를 매개하는 미디어를 연구하고 분석하는 기류에 이르기까지 괄목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19년 한해 한국어능력시험(TOPIK) 응시자가 375,871명이며 2007년 이후 누적 지원자가 250만 명에 육박함으로써 가히 한국학의 르네상스가 도래했다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다(이영준, 2020, 33). 약 10년 전만 해도 해외 한국학 박사학위 배출 기관은 서구권에 편중된 31개 대학에 불과했으나, 2020년 현재 한국학 강좌가 운영되는 해외 대학은 107개국 1,408기관이며, 석박사 학위는 39개국 107개 대학에서 수여되었다(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2022).

국립중앙도서관이 2009년 이래 연 1~2회 발간해 온 국문잡지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는 해외 한국학연구 동향 및 한국학 도서관의 현황 정보를 제공한다. 최근 해외 한국학 연구의 양적, 질적 현황을 살핀 연구로, Yoon과 Kang(2017)은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영어로 저술된 한류관련 학술지 논문 76편과 단행본 18권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연구 출판물의 수가 급증하는 시점이 2011년에서 2013년으로 파악되었다. 이 시기는 한류가 아시아를 넘어 북미와 유럽에까지 광범위하게 확산된 시점과 맞물린다.

유사한 관찰이 Hong(2019)의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2004년부터 2016년까지 출판된 국제학술지 논문 217편을 분석한 결과, 2012년과 2014년 사이에 논문의 양이 극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저자는 이를 2012년 싸이의 강남스타일의 인기가 유튜브로 확산되면서 학술적인 흥미를 촉발시킨 결과로 해석했다. 또한, 분석한 논문의 36.6%가 일본, 대만, 라오스, 베트남 등 다른 문화적 배

경을 가진 외국인 연구자들에 의해 출판된 것으로, 해외 한국학 연구자 가운데 외국인의 비중 역시 증가했음을 보여주었다.

유럽지역의 동향을 분석한 김훈태(2020)는 한류 현상이 아시아 지역을 넘어 유럽과 미주까지 본격적으로 확산된 2013~2014년부터 한국학 전공의 정원과 지원자가 급속도로 증가했음을 보고하며, 이는 BTS(2013년 데뷔)와 EXO(2012년 데뷔)와 같은 아이돌 그룹이 데뷔했던 시기와 거의 맞물려 있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발트 지역에 세종학당이 설치되면서 이곳에서 한국어를 보다 체계적으로 배우고 한국문화를 경험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후 현지 대학에서 한국학을 전공으로 선택하는 사례가 증가하였음을 밝혔다(김훈태, 2020). 이 같은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지난 20여 년에 걸친 해외에서의 한류의 확산이 한국어학습의 열풍을 가져오고 그것이 한국학연구로 이어지는 연결 고리를 확인시켜 준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적 발전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것만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목수정(2020)은 BTS의 프랑스 공연을 통해 K-pop 팬덤이 백만명을 넘으면서 파리 국립동양어대학(INALCO) 한국어학과에도 매년 많은 신입생들이 입학하였지만, 3학년이 되면 단 10~20%만 남게 된다고 보고했다. 이는 한류에 대한 열정이 이들을 한국학 연구의 단계로 이끌지만, 이러한 현상이 한국학의 발전으로 이어지기에는 아직 많은 한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2.3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 연구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에 대한 연구가 많지

않은 가운데, 해외 대학도서관의 한국학자료실 이용자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를 찾을 수 있다. Chun(2017)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미국 일리노이대학교 동아시아도서관의 한국장서를 이용하는 대학원생 9명을 대상으로 그들의 도서관 장서이용 행태를 질적 연구를 통해 조사한 바 있다. 이 연구는 학술 목적의 정보이용에서 한국학자료실의 역할과 한계를 밝히는데 초점을 두었다.

한국의 국가기관이 해외 정보이용자들을 위해 제공하는 대표적인 서비스는 현재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국제교류재단의 프로그램들이다. 국립중앙도서관(2022)은 ‘해외 한국자료실’(Window on Korea)을 해외 27개국에 설치하여 자료지원 서비스를 하고 있다. 한국국제교류재단(2022) 역시 ‘코리아 코너’(Korea Corner)와 같이 해외 일반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제고하고자 해외 대학, 도서관 등에 한국문화 복합홍보 공간을 개설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두 서비스 모두 해외에 설치된 한국자료실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주로 인쇄자료 중심의 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미디어 환경에서 다양한 층위의 한국 관련 정보이용자들이 어떤 정보를 필요로 하며 또 어디에서 어떻게 찾고 이용하는지, 또 그 과정에서 어떤 장애들을 경험하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해외 한국 관련 정보자료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나아가 한류가 한국학 발전의 토대가 되는 장을 구축하는데 기여하게 될 것이다.

3. 연구 방법

3.1 조사 설계

본 연구에서는 한국자료 및 한류 정보에 대한 수요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특성과 정보요구 및 정보이용행동을 파악하기 위하여 심층면담 기법과 설문조사법을 조사방법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는 해외 이용자의 한국 관련 정보행동에 대한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상황에서 수행된 연구이므로, 어느 특정 대상이나 지역 또는 주제에 한정하지 않고 그 전체 그림을 개괄적으로 파악하고 그 특징을 찾아보고자 하는 탐색적 연구로 설계되었다. <표 1>은 전체 조사 설계를 요약한 것이다.

3.2 표집방법 및 자료수집방법

3.2.1 심층면담

조사 대상 개개인에 대한 심층면담은 두 가지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첫 번째 목적은 조사 대상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 이용행태, 정보요구 및 애로사항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었고, 두 번째 목적은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 사용할 문항개발을 위한 자료수집이었다. 심층면담을 위한 면담가이드에 수록된 질문내용은 한국에 대한 경험과 관심, 해외에서 한국 관련 자료이용 경험과 애로사항, 한국자료 지원서비스 개선에 대한 요청 및 기대 등을 포함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담은 국내 체류 외국인과는 1:1 대면 또는 비대면 화상인터뷰

〈표 1〉 조사 설계

구분	심층면담	설문조사법	
		설문조사(정량분석)	후속설문조사(정성분석)
조사 목적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한국 관련 정보이용행태, 요구사항 등에 대한 심층 이해	한국자료 이용경험, 이용만족, 요구사항과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와 수요 파악	설문조사 및 심층면담 분석내용 보완을 위해 구체적인 의견 수집
조사 대상	해외에서 한국 관련 정보자료를 이용한 경험이 있거나 미래 자료 및 자료실 수요를 가진 개인	한국 관련 자료에 대한 수요를 가진 개인	설문조사 시 후속면담에 참여의사를 밝힌 응답자
자료수집 방식	연구자와 1:1 대면, 비대면 화상인터뷰, 이메일 인터뷰	주로 폐쇄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주로 개방형 질문으로 구성된 구글 설문지폼
조사 내용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 한국 자료를 위한 도서관 이용 경험, 개선사항, 한국자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인구통계학적 특성,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한국 관련 정보 이용 행태와 요구, 한국자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기대	한국자료 이용 시 겪었던 어려움, 희망사항, 향후 서비스에 대한 기대
참여자 모집방법	눈덩이 표집(snowball sampling)	한국학 연구자, 한류 소비자, 한국어 학습자가 모인 오프라인 및 온라인 커뮤니티	후속조사에 참여의사를 밝힌 설문조사 참여자에게 이메일로 질문지 발송
참여자 수	26명	382명	75명
조사 기간	2020년 9월20일-10월15일	2020년 10월1일~20일	2020년 10월17일~31일

방식으로 영어 또는 한국어로 진행하였고, 면담자별로 약 1시간 가량 소요되었다. 해외 참여자의 경우는 비대면 화상인터뷰로 진행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이메일을 통한 서면조사로 대신하였다.

심층면담 참여자는 총 26명으로, 이들의 국적, 신분, 관심영역 등의 특성은 〈표 2〉와 같다. 국적은 북미 7명, 아시아 13명, 유럽 6명이 참여하였고, 신분은 학부생 9명, 석박사 대학원생 13명, 연구자 2명, 일반인 2명이 참여하였다.

3.2.2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위하여 먼저 문헌 조사와 개별 심층면담을 통해 파악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를 구성한 후, 예비조사를 거친 다음 온라인 설문도구(Google form)를 활용하여 본 조사를 시행하였다. 설문 문항은 인구통계학적 배경,

한국 관련 관심 분야와 경험, 정보이용행태, 한국자료 이용시 선호와 요구, 도서관 이용 경험과 정보이용에서의 장애와 애로점, 희망사항 등을 포함하였다. 일반적인 한국 관련 설문 문항은 심층면담을 토대로 개발하였고, 정보관련 문항은 심층면담과 선행연구(권나현 외, 2013; Kim, Sin, & Yoo-Lee, 2014; Khoo, 2014)를 참고하였다. 설문지는 한국어와 영어 2개 언어로 작성하여 응답자가 선택하게 하였다(〈표 3〉 참조).

본 연구의 조사 대상자는 해외에서 한국과 관련된 정보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포함한다. 모집단 전체를 대표하는 샘플링 프레임(sampling frame)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표본선정은 기본적으로 편의표집법을 적용하면서 그 모집경로를 최대한 다변화하였다. 활용한 모집경로로 국내 대학교 한국어학당 게시판, 한국학자들의 뉴스레터, 국내 대학교 커뮤니티

〈표 2〉 심층면담 참여자의 국적, 신분, 관심 영역

국적	신분	관심 영역	
북미 7명 (미국 4, 캐나다 3)	학부생 9명 (몽골 1, 베트남 2, 러시아 1, 일본 1, 중국 2, 터키 1, 프랑스 1)	학부생	한류콘텐츠(K-pop, K-drama, K-cinema), 한국문화전반, 한국문학, 한국어교육, 한국어학, 한국어사, 과학기술, 한국경제/무역/비즈니스, 한국교육학, 한국패션, 미디어제작, 테크놀로지, 한국음식
아시아 13명 (중국 4, 대만 1, 일본 2, 인도네시아 1, 베트남 3, 필리핀 1, 몽골 1)	대학원생 13명		한국근현대문학, 한국고전문학, 한국역사, 한국정치와 사회, 한국외교사, 한국문화전반, 한국어사, 한국어성사, 한류콘텐츠(K-pop 뮤직 비디오, K-drama, 팬덤문화)
	석사과정 7	박사과정 6	
유럽 6명 (프랑스 2, 스페인 1, 러시아 1, 독일유학 러시아인 1, 터키 1)	박사 2명(faculty/instructor) (미국 1, 일본 1)	연구자/교수	한국근현대문학, 한국역사, 한국정치사회, 한류콘텐츠(K-drama)
	일반인 2명 (미국 2)	일반인	한국어학습, 한류콘텐츠(K-pop, K-drama), 한국음식

〈표 3〉 설문지 문항 구성

설문조사 문항 영역	세부 설문조사 문항
인구통계학적 특성	국적, 거주 국가, 연령대, 소속
한국에 대한 관심과 경험	관심도, 관심 갖게 된 연도, 한국과 관련된 일 경험, 한국 관련 관심 분야, 한국어 수준, 한국어 학습 경험 및 계획, 현재 관심 단계(한류-한국어-한국학)
한국관련 정보이용행태	주 이용 정보원, 선호하는 정보원
자료실 이용 경험과 요구사항	한국자료 제공 기관 필요성, 기관 이용 경험
요구와 기대	이상적인 한국자료서비스가 갖춰야 할 요소, 인적지원에 대한 희망 사항

니티 공개게시판, 한국어 학습 Facebook group 등에 게시하였고, 해외 한국문화원, 국내 대사관, 해외 한국학 사서, 유럽 한국학 사서네트워크, 한국학 연구자 네트워크(Korean Studies Portal), 해외 한국학 연구자 이메일리스트 등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총 382명이 설문에 참여하였고, 수집된 데이터 분석을 위하여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18.0)을 사용하였다.

자료수집 결과, 전 세계 총 52개국에서 382명이 설문조사에 응답하였다. 스페인 국적자가

69명(18.54%)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미국(46명), 한국(39명), 중국(28명), 베트남(20명)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대별 분포를 살펴보면, 20대가 전체 응답자의 43.7%로 가장 많았고, 30대(15.6%), 40대(10.3%), 50대(10.3%), 60대 이상(7.1%), 10대(2.1%) 순이었다. 신분별 분포를 살펴보면, 연구자/교수(31.7%), 대학생(25.7%), 대학원생(25.4%) 순으로 높았고 이들이 응답자의 약 80%를 차지했다.¹⁾ 그 밖에 사서, 대사관 직원, 은퇴한 외교관, 박물관

1) 응답자는 본 연구진이 배포한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로, 한국학 연구자/교수급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은 본 설문 주제에 대한 관심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파악된다.

큐레이터, 비서, 간호사, 경비원, 회사원 등 다양한 배경의 사람들이 참여하였다. 참여자들의 한국 관련 업무 경험을 다중 응답으로 파악한 결과(N=375), 언어 관련(46.9%), 연구 관련(45.3%)이 단연 많았으며, 경험이 전무한 참여자도 적지 않았다(25.8%)(<표 4> 참조).

3.2.3 후속설문조사

해외에서 가장 활발히 또 심도 높게 한국자료를 이용할 것으로 추정되는 집단이 한국학과 한국어학습에 관심있는 사람들일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의 정보이용 경험과 장애요인 등을 좀 더 깊이 파악하고자 후속 설문조사를 수행하였다. 질문은 자료검색 경험, 주제별/유형별 선호하는 정보원, 정보접근과 이용에서의 장애와 문제해결방법, 팬데믹 이후 한국자료 이용에 대한 전망, 한국 정보서비스 기관에 대한 기대 등이며, 모두 개방형 질문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앞선 설문조사에서 후속조사 참여 의사를 밝힌 234명에게 이메일로 질문지를 보낸 후, 충실히 응답한 최종 50명의 응답을 분석하였다. 응답자 구성을 보면, 해외 한국어학과, 동아시아 학부, 한국학과, 연구소 소속 교수/연구원 28명

(56%), 한국학 전공 학부생/한국어 수강생 12명(24%), 한국학 전공 대학원생 6명(12%), 한국자료담당 사서 1명(2%), 일반인 3명(6%)이었다.

4. 분석 결과

4.1 연구 참여자 특성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 참여한 한국 관련 정보이용자들의 특성은 그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 관심 분야를 묻는 문항을 분석함으로써 파악하였다. 먼저, 한국에 대한 관심 수준을 1-10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평균 관심도는 9.14점으로 관심이 매우 높은 사람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N=362).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시기는 1960년부터 가장 최근인 2020년까지로 그 스펙트럼이 매우 넓었다. 10년 단위로 묶어 분석한 결과, 1970년 이전(3명), 1970~1977(9명), 1980~1989(14명), 1990~1999(45명), 2000~2009(79명), 2010년대 이후(228명)로 현재에 가까울수록 많았으며, 2000년대에 비하여 2010년대가 약 3배

<표 4> 설문조사 참여자 특성

연령		소속		한국관련 업무경험(복수응답)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구분	응답자 수(%)
10대 이하	8(2.1)	대학생	98(25.7)	언어 관련	176(46.9)
20대	166(43.7)	대학원생	97(25.4)	연구 관련	170(45.3)
30대	80(21.1)	연구자, 교수	121(31.7)	경험 없음	97(25.8)
40대	59(15.6)	교사	22(5.8)	비영리 교류	50(13.3)
50대	39(10.3)	해외한국교민, 거주인	5(1.3)	영리 목적	22(5.9)
60대 이상	27(7.1)	기타	39(10.2)	기타	23(6.1)

정도 많았다.

응답자들의 한국어 능력을 보면, 고급수준(42.7%)으로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고, 초급(29.3%), 중급(20.9%) 순이었다(N=382). 응답자 중 331명(86.6%)이 과거 한국어를 공부했었고 274명(71.7%)은 앞으로도 학습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하여 한국어에 대한 높은 학습 의지를 드러냈다. 관심주제 분야를 보면, 각종 한국학 관련 주제분야(42.9%), 한국어 학습(29.9%), K-컬처(한국대중문화)(27.2%) 순이었다(N=375). 한국학 관련 주제분야를 구체적으로 보면 예술·역사(40.6%), 문화·문학(22.4%), 사회과학(17.6%), 철학·종교(13.3%), 과학·기술(3.6%), 기타(2.4%) 순이었다. 이러한 분포는 한국 관련 관심 분야의 전체를 아우르는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본 연구에 참여했음을 보여준다.

한류에 대한 관심이 한국어 학습의 계기가 되고 나아가 한국을 학술적인 영역에서 연구하는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견해에 동의하는지 4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전체 응답자(N=382)의 91.1%가 대체로 동의하거나 매우 동의한다고 응답하였다.²⁾ 이 결과는 이와 관련된 선행연구(이영준, 2020)의 주장들을 뒷받침한다. 심층면담 참여자들 역시 대체로 자신 또는 주변의 친구의 사례를 들어 동의하였다.

한류로 인해 한국에 관심을 가졌다. 고등학교 때(2012년), ‘꽃보다 남자’라는 드라마를 보기 시작. 한국어도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 한류 덕분에 한국을 알게 되고 오고 싶어하고, 배우고

싶어한다.... 드라마를 50개 정도 보고 한국어 공부하다가 세종학당으로 가서 배웠다. (#9, 터키, 서울 A대학 국제무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스페인에서 유일하게 한국학과가 있는 곳은 남쪽인 말라가 대학이다. 말라가대학 한국학과 학생들은 한국으로 유학을 많이 갈 것이라 생각한다. 옛날에 비해 마드리드에서도 한국에 대한 관심이 많아졌지만, 아직은 아시아문화권에서 중국이 여전히 강세이다... 난 마드리드 대학교에서 한국학과가 개설되어 그곳에서 가르치고 싶다는 막연한 꿈이 있다. 그러한 것에 기여할 수 있다면 좋을 것 같다. (#22, 스페인, H대학 석사과정)

4.2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정보원 이용 특성

해외 정보이용자들의 한국에 대한 관심이 한류, 한국어, 한국학으로 발전한다는 선행연구 결과를 본 연구에서 확인함에 따라, 본 절에서 정보이용 특성을 분석할 때 응답자들의 관심 영역에 따라 한류 향유, 한국어학습, 한국학연구 등 세 집단으로 나누고 각 집단별 정보요구와 정보이용행태에 어떤 특성과 집단 간 차별성이 파악되는지를 살펴보았다.

4.2.1 정보원 이용

설문을 통해 한국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조사한 결과, <표 5>와 같이 세 집단 모두 ‘인터넷’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었다(23.5%, 26.9%, 18.3%). 그 다음부터는

2) 한류 확산 시기 이전에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된 경우에는 동의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

〈표 5〉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단위: 응답(%)

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인터넷(23.5)	인터넷(26.9)	인터넷(18.3)
2순위	커뮤니티/SNS(22.4)	커뮤니티/SNS(21.5)	온라인 학술자료(16.1)
3순위	스트리밍(17.6)	스트리밍(11.0)	종이책/종이잡지(15.5)
4순위	종이책/종이잡지(9.4)	교사/교수(9.4)	커뮤니티/SNS(12.1)
5순위	주변 사람(8.2)	온라인 학술자료(7.5)	전자책(9.9)
6순위	온라인 학술자료(5.9)	종이책/종이잡지(7.3)	교사/교수(8.1)
7순위	교사/교수(4.7)	주변 사람(6.5)	스트리밍(7.6)
8순위	전자잡지(4.7)	전자책(5.9)	전자잡지(7.5)
9순위	전자책(3.5)	전자잡지(4.0)	주변 사람(5.0)

집단별 차이가 나타났는데, 한류 집단과 한국어 집단 모두 ‘온라인 커뮤니티’ / ‘소셜미디어’가 2위(각각 22.4%, 21.5%), ‘스트리밍 서비스’가 3위(각각 17.6%, 11%)였다. 한국학 집단과 한류 집단은 한국어 집단에 비하여 ‘스트리밍 서비스’(7.6%) 의존도가 더 높은 가운데, ‘종이책’ / ‘종이잡지’(9.4%)를 정보원으로 이용하는 비율이 더 높았다. 반면, 한국어 집단은 한류 집단에 비하여 ‘교사’ / ‘교수’의 도움(9.4%), ‘온라인 학술자료’(7.6%)를 더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학 관심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비교하여 ‘온라인 학술자료’(16.1%)와 ‘종이책’ / ‘종이잡지’(15.5%), ‘전자책’(9.9%)을 더 많이 이용한 반면 ‘커뮤니티’ / ‘SNS’는 더 적게 이용했다는 점에서 앞의 두 집단과 분명한 차이를 보였다. 요컨대, 디지털 기반의 정보원이 주류를 이루는 가운데, 정보원 이용에서 세 집

단 간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고, 한국학 집단은 다른 두 집단과 좀 더 구별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³⁾

제시된 심층면담⁴⁾을 통해 설문조사 결과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다. 〈표 6〉은 면담 참여자들이 한국에 대한 정보나 자료를 찾기 위해 주로 이용하는 구체적인 정보원을 유형별로 보여준다.

심층면담에서도 인쇄자료에 비해, 디지털 형태로 이용 가능한 온라인 검색,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전자자료,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이 주된 정보원으로 활용되고 있었다. 대학원생이나 연구 그룹에서는 한국에서 지원하는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KISS, RISS, DBPIA)와 여타의 온라인에서 제공되는 데이터베이스 활용이 빈번했으며 만족도 또한 높았다.

3) 관련 설문 문항이 이용순위에 대해 복수응답을 하는 것으로 설계되었으므로, 집단 간 차이의 통계적인 유의성을 보여주는 분산분석은 수행하지는 않았다.

4)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을 묻는 설문문항에서 일부 응답자들이 “인터넷”, “커뮤니티/SNS”, “온라인 학술자료” 등을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다. 같은 질문을 심층면담에서도 물어봄으로써 이용자들이 실제 이용하는 정보원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표 6〉 주로 이용하는 정보원 유형

정보원 유형	응답자 수(복수응답)
인터넷 구글링/Googlescholar(16)/위키피디아(1)/크롬(1)/네이버(6)/바이두[Bidu, 중국의 검색엔진](2)	26
커뮤니티/SNS Facebook(3), Instagram(6), Twitter(4), 블로그(2), Weibo[중국 트위터](1), Weverse[온라인 팬 커뮤니티 플랫폼](1), 팟캐스트(1), 기타(2)	19
온라인 학술자료 ▲ 해외 데이터베이스(MUSE, JSTOR, the Ebsco Collection [전세계 도서관 자료 서비스](6)) ▲ 한국 온라인 학술논문 서비스(DBPIA, KISS, RISS)(6) ▲ 한국 온라인 DB[한국신문기사 아카이브, 역사정보시스템, 디지털 라이브러리, 한국고전종합DB](4) ▲ 학술논문구매 사이트[레포트 월드](1)	17
종이책/종이잡지	16
전자책/전자잡지 E-book(10), 전자잡지(2), 오디오북(2)	14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YouTube(12), Viki[싱가포르 플랫폼](1), 기타(1)	14
스트리밍 서비스 Netflix(3), Naver VLive(1), Melon(1), Sportify(1), 기타(3)	9
CD/DVD	2

한편, 심층면담에 참여한 외국인들의 정보추구행동으로부터 해외에서 한국관련 정보자료를 습득하는 방식을 엿볼 수 있다.⁵⁾ 먼저 한국에 처음 관심을 갖기 시작한 사람들의 정보추구행동을 살펴보면 전통적인 정보원보다 블로그, 유튜브 등 일상적 정보원을 주로 이용하고 있었다.

터키에 있을 때 처음에는 영어로 된 한국 관련 블로그, 유튜브 또는 먼저 한국을 가본 지인들에게 물어보았다. 한국정보가 많지 않아서 터키나 영문 블로그를 많이 보았는데 원하는 정보를 다 찾을 수 있었다... 네이버 카페도 잘 찾아보긴

했으나 한국 사이트는 너무 세세해서 오히려 영어로 된 사이트가 외국인 입장에서 보기에 더 도움이 되는 것 같다. (#9, 터키, M대학 국제무역전공 학부 교환학생)

한국 자료를 찾지 못하면 인터넷으로 들어가서 “Talk To Me in Korean”(개인 유튜브 채널) 이용한다. 특별히 주변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이 없어 도움을 구하기 어려운데, 온라인을 들어서 나처럼 비슷한 한국자료를 찾기 위해 도움을 청하는 포럼을 이용하게 된다. (#1, 미국, 일반 시민)

5) 심층면담은 참여자의 선호에 따라 한국어 또는 영어로 진행되었다. 영어로 진행된 경우, 번역문을 인용하였다.

외국인들은 여러 다른 매체와 정보원을 나름대로 평가하며 목적에 따라 선택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한류에 대한 자료는 보통은 바이두(Bidu, 중국 검색엔진), 네이버를 이용하는데, 가장 좋은 것은 한국 사이트예요. 한국어 학습을 예능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웁니다. 책에서는 잘 쓰지 않는 관용어들이 많았는데, 예능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일상에서 쓰는 어휘들이나 표현들을 많이 써서 유용해요. 한국학연구를 위해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요. 그러나 한국정보는 바이두나 구글(또는 네이버)에서 검색하고 교차 검색을 하기도 합니다. (#15, 중국, 서울 A대학 디지털미디어학과 학부 유학생)

개인적 관심사에 대한 정보요구는 온라인으로 충분히 만족한다. 음식이나 비자 절차 같은 것도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한류의 경우, 인터넷 소셜미디어, 유튜브, 인스타그램을 통해 찾을 수 있다. 한국어학습의 경우, 수업듣기 전에 혼자서 온라인으로 공부한다. 그러나 혼자서 쉽지 않아 언어센터에서 수업을 들었다. 소셜미디어, 유튜브 친구, 페이스북 그룹(한국에 사는 외국인) 등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교류하고 있으며, 미래에는 어떤 매체를 이용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만족한다. (#11, 프랑스, 서울 A대학 영문과 석사과정 교환학생)

교수/연구자급에서는 시청각 자료들을 학술적 주제의 대상으로 삼거나 교육용 이미지 자료나 통계자료 등을 추가적으로 가공해 '인포

그래픽'으로 만들어 활용하기를 기대하고, 나아가 이를 재사용할 수 있게 데이터베이스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희망하는 사례도 있었다.

한국의 역사와 문화 강의를 준비하면서 '인포그래픽'을 만들기 위한 통계자료와 이미지 자료를 찾기도 하고, ... 그런 것들이 1차적으로 쓰고 버려지는 경향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검증된 인포그래픽 이미지들이 추가로 가공될 수 있는 형태로 한 곳에 모아 교육자나 연구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 인포그래픽 재활용 센터라든가 집하장이 온라인에 데이터베이스 형태로 있다면 유용하지 않을까 한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이와 같이 데이터 기반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새로운 정보요구가 개발되고 있는 현상도 주목해 볼 만하다.

4.2.2 선호하는 자료 유형

한국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선호하는 자료 유형을 조사한 결과, 한국어 집단과 한국학 집단은 공통적으로 종이책을 가장 선호하였다(각각 25.1%, 23.7%). 반면 한류 집단은 스트리밍 서비스를 가장 선호(22.7%)하고 종이책은 3순위(14.7%)였다. 한국어 집단의 경우 종이책에 대한 선호도가 높았던 반면, 한국학 집단은 온라인 학술자료와 전자책 등에 대한 선호도가 종이책 다음으로 높은 것이 명확히 파악되었다. 흥미로운 점은 세 집단 모두 책의 경우, 전자책보다 종이책을 선호하였으며, 잡지의 경우는 종이잡지 보다는 전자잡지, CD/DVD보다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3배 가까이 더 선호하였다. CD/DVD,

〈표 7〉 선호하는 자료 유형

단위: 응답(%). 3개까지 선택

순위	한류 관심 집단	한국어 관심 집단	한국학 관심 집단
1순위	스트리밍(22.7)	종이책(25.1)	종이책(23.7)
2순위	온라인 학술자료(16.0)	전자책(17.7)	온라인 학술자료(20.4)
3순위	종이책(14.7)	스트리밍(15.6)	전자책(18.2)
4순위	전자책(12.0)	전자잡지(10.7)	전자잡지(10.0)
5순위	CD/DVD(9.3)	온라인 학술자료(10.1)	스트리밍(9.1)
6순위	전자잡지(9.3)	종이잡지(8.6)	종이잡지(7.5)
7순위	종이잡지(8.0)	오디오북(7.0)	CD/DVD(5.8)
8순위	오디오북(8.0)	CD/DVD(4.9)	오디오북(4.7)
전체	100%	100%	100%

종이잡지, 오디오북은 세 집단에서 공통적으로 가장 선호도가 낮았다.

자료유형별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를 심층면담 내용을 통해 좀 더 들여다 볼 수 있다. 예컨대, 20대 초중반의 학부생 면담참여자들은 대체로 인터넷을 통해 접근 가능한 동영상 콘텐츠 공유 플랫폼, SNS, 영상/음원 스트리밍 서비스 등을 일상적 정보원으로 활용하고 있었다. 이들은 이미지 자료나 동영상이나 음원 자료를 보다 적극적으로 탐색하는 경향을 보였다. 주목할 바는 종이자료 [단행본, 신문, 잡지]에 대해 ‘느낄 수 있어서’, ‘정보가 정확해서’, ‘정보가 더 자세하고’, ‘읽기에 편하고 익숙해서’ 등의 이유로 선호한 경우도 적지 않았고, 동시에 대체로 접근의 용이성과 상황의 필요에 의해 전자자료(e-book) 대한 요구도 갖고 있다는 점이다.

인터넷을 이용하기는 하지만 논문 같은 매체나 책이 더 나은 정보일 때도 종종 있다. 소셜미디어에서 원하는 정보를 찾지 못할 수 있으므로 책 같은 게 필요할 수 있다. 소셜미디어의 빠르고

실용적 정보가 많은 것 같으나 도서관은 깊고, 정확한(구체적, 신뢰) 정보가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자료를 찾고 읽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므로 잘 안 읽는 것 같다. (#11, 프랑스, M대학 영문과 석사과정 교환학생)

한국에 대한 자료를 찾을 때, 주로 종이책을 선호한다. 확인하면서 체크하면서 보는 경우가 많은데, 전자책으로도 할 수 있기는 한데 불편하기 때문이다. 읽을 때는 종이책이 좋고, 조금 구체적으로 써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다. 정보가 필요할 때는 온라인을 쓰고, 뭔가를 제대로 알고 싶을 때는 종이책이 더 좋은 것 같다. (#14, 일본, M대학 국제통상학과 학부생)

4.3 한류의 확산이 한국 관련 정보자료 이용에 미치는 영향

한류의 확산이 한국 관련 정보이용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면담 참여자 가운데 한국어 교육 및 한국역사문화를 가르치는 교수자들의 경우, 한류 콘텐츠를 수업

에 적극 활용해 좋은 효과를 얻고 있다고 응답하였다.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고 또 새로운 교수법을 활용하고자 할 때 한류의 요소들을 가끔 활용하기도 하는 것 같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생)

해외에서 한류의 확산이 한국자료 이용에 영향을 끼쳤다고 생각한다. 연구주제는 아니지만, 한국어 수업을 할 때 한류관련 자료를 가끔 이용하는데, 가령, K-pop 그룹 트와이스 관련 영상자료를 수업에서 이용하였을 때 트와이스 팬들이 있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한국 영화는 수업과제로 사용한다. (#18, 일본, D외국어대학 박사)

자신의 한류 경험과 관심을 학문 영역으로 발전시킨 사례를 캐나다 석사과정생의 경험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의 대중예술, 미디어와 서구 관객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심이 있으며, 연구대상은 K-pop 퍼포먼스 비디오, K-pop 가수들의 인터뷰, YouTube, VLive, Weverse 등을 통한 팬덤 활동이다. YouTube, Netflix, Viki(싱가포르 동영상 콘텐츠 플랫폼), VLive(한국의 네이버 영상스트리밍 사이트), 위버스⁶⁾ Weverse, twitter, 그리고 책, 저널, e-book,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DVD 등을 이용한다. (#26, 캐나다 B대학 석사과정생)

학위논문 준비에 이용하는 자료의 유형과 경로는 이전의 인쇄자료 중심의 인문학 및 문화, 사회 연구 정보원에서 크게 확장되었음을 볼 수 있다. 또한 한국학 또는 아시아학 전공자가 아닌 연구자가 한류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한류 콘텐츠를 자신의 연구 영역에 포함시키고 한국사회와 역사, 정치에 대한 이슈들로 확장하여 한국 연구를 심화시켜 나가는 사례도 찾아볼 수 있다.

현재 아시아학/한국학이 아닌 분야에서 한국의 문화적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미디어 연구, 사회학, 심리학 등에서 팬덤과 커뮤니티를 연구하고 있고, 문학이나 영문학자들이 언어, 서사, 문학을 탐색하고 있다. 나는 한국관련 학문이 점차 번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내가 일반적인 예는 아니겠지만, 컨퍼런스를 가보면 얼마나 이러한 현상이 늘어가고 있는지 알 수 있다. (#16, 미국, T대학 영문학과 교수)

4.4 한국 관련 정보이용 환경 개선을 위한 희망 사항

설문응답자들에게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한국자료실이 설치된다면, 무엇을 가장 기대하는지, 즉 도서관 서비스에 대한 요구를 <표 8>과 같이 15개 항목으로 제시하여 파악해 보았다.

분석 결과, 집단별 기대하는 서비스에도 역시 차이가 있었다. 전체적으로 최상위 3개 요구는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 ‘한국에 관한

6) 한국의 Bighit Entertainment[현재 HYBE]에서 만든 모바일 앱 및 웹 플랫폼으로, K-pop 밴드와 뮤지션을 위한 멀티미디어 콘텐츠 및 아티스트 대 팬 커뮤니케이션 호스팅을 전문으로 한다.

〈표 8〉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정보지원 서비스에 대한 희망 사항	전체	한류 집단	한국어 집단	한국학 집단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1순위	2순위	1순위	1순위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신속히 제공한다.	2순위	1순위	4순위	3순위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다.	3순위	10순위	9순위	2순위
높은 퀄리티의 자료를 엄선해서 제공한다.	4순위	8순위	6순위	4순위
한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5순위	12순위	7순위	5순위
문화 프로그램 / 전시가 열린다.	6순위	4순위	2순위	6순위
한국 사회에 관한 최근 동향 정보들을 얻을 수 있다.	7순위	6순위	3순위	7순위
영어로 된 자료가 많다.	8순위	12순위	5순위	7순위
자료실을 통해 한국 도서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9순위	8순위	11순위	9순위
다양한 영상매체(음악, 영화)를 즐길 수 있다.	10순위	5순위	9순위	10순위
나의 모국어로 된 자료가 많다.	11순위	3순위	7순위	13순위
자료 접근에 도움을 줄 사서가 있다.	12순위	7순위	13순위	11순위
함께 토론하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한다.	13순위	12순위	12순위	12순위
전자기기를 대여받을 수 있다.	14순위	12순위	14순위	14순위
내 나라에 관한 한국어 자료가 있다.	15순위	10순위	15순위	15순위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 '많은 전자책, 전자저널 및 DB'로 나타났다. 이들 요구는 굳이 물리적인 도서관이 아닌 원격으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심층면담에 참여한 대다수의 응답자들 역시 향후 전자책이나 전자자료가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지게 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러한 자원에 대한 지원을 확충해 주기를 희망했다. 특히 전 지구적으로 경험한 코로나 사태는 연구자들의 이러한 요청을 더욱 절실하게 만들고 있었다. 도서관 폐쇄로 인해 희귀본은 물론 인쇄자료에 대한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연구에 어려움이 컸기 때문에, 향후 더 적극적으로 전자책과 디지털 아카이빙을 확대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었다.

20세기 초 한국여성에 의해 쓰여진, 한국여성에 관한 1차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찾고 있는 자료에 대해서 매우 불만족스럽다. 내가 다니는 대학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원문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는 하나의 컴퓨터가 아시안 도서관에 있는데, 현재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캠퍼스 빌딩이 모두 폐쇄되어 이용할 수가 없다. 한국어로 된 책을 E-book의 형태로 접근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많은 한국 논문들의 경우 읽기 전에 구매해야 한다. 자료를 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한국어로 가거나 그 자료를 포기해야 할 상황이다... 향후 전자책 형태의 한국어로 된 자료를 더 많이 이용하고, 온라인상으로 아카이브 자료의 이용이 가능해져서 온라인으로 한국도서관에 접근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4,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이 요청은 국내 유관기관들의 해외 자료지원 서비스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심층면담을 통해 팬데믹 상황에서 물리적 도서관, 자료실 이용의 어려움과 전자자료 서비스의 시급성이 확인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해외 한국자료지원서비스의 방

향성을 읽어낼 수 있다.

4.5 정보이용의 장애 요인

본 연구 참여자들을 통해 파악한 해외 한국 관련 정보이용자들의 정보 접근의 장애 요인들은 다음과 같이 다섯 유형으로 정리할 수 있다.

4.5.1 최신 자료 부족

참여자들은 해외에서 접할 수 있는 한국 정보 자료가 그 양과 질적 측면에서 모두 부족할 뿐 아니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우선적인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었다. 해외 출판물들을 구입하기에는 너무 큰 비용이 들고, 아르헨티나와 같은 일부 국가에서는 정부가 해외 출판물 구매에 많은 제한을 부가하고 있어 개인적 차원에서 한국자료를 입수하는데 애로가 많았으며, 한국도서관과의 상호대차 역시 원활하지 않아 자료 입수에 어려움이 많았다.

한국의 자료지원이 더 보장되기를 바란다. 기사를 찾으면 3~4년 전의 내용이며, 변화가 빠른데 신속하게 업데이트가 필요하다. (#7, 러시아, M대학 영문학과 교환학생)

대련 외국어대 도서관의 경우에는 한국어 전공자가 많고 심지어 학과 내에 한국문화원도 설치되어 있었지만 한국학 저서가 너무 적다. 문학, 역사, 지리, 사회, 경제에 대한 책이 다 부족한 것 같다. 책들을 보면 대부분 한류에 관한 책이나 여행에 관한 책이나 사전류에 불과하다. 있는 저서도 출판날짜가 너무 오래돼서 실효성이 떨어진다. (#25, 중국, H대학 석사과정생)

4.5.2 디지털 자료 부족

가장 적극적으로 자료를 이용하는 교수/연구자 집단이 겪는 보편적인 문제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자료가 여전히 많고 특히 근대 역사 자료를 해외에서 이용할 수 없다는 점이었다. 한국의 대학, 국립도서관의 자료, 사적 아카이브, 비매품인 정부 출판 자료 컬렉션들에의 접근성, 북한 자료 수집의 어려움 등 현재 다양한 자료들이 필요하지만 충족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특히 팬데믹으로 인해 도서관 상호대차가 중단되고 온라인상 자료 접근성이 좋지 않아 자료이용에 어려움이 극심했다. 많은 경우 사서나 지인 또는 교수 등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있었다. 도서구매의 경우, 배송도 쉽지 않아 인터넷에서 구매하는 경우도 많았으며, 한국어 학습 교재와 같이 여러 학생이 동시에 찾는 자료일 경우, 해외 사이트에서 구매하려 해도 공급이 되지 않아 사실상 자료를 포기하는 경우도 많았다.

인터넷에서 한국학 저서에 관한 정보가 너무 적고 그런 한국학저서를 구매하거나 전자 자료로 받는 것에 어려움이 많다. 중국에서 온라인DB를 통해서 학술논문과 학술지 논문 어느 정도 찾을 수 있지만 저서 또한 연구에 빠지면 안 되는 자료인데, 이용하기 많이 힘들다. 이런 한국학 저서가 전자책으로 만들어져 자료실에서 공유되면 좋을 것 같다. (#25, 중국, H대학 석사과정)

학교나 도서관을 통하지 않고 개별 외국인들이 직접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상용 전자자료들을 더 쉽게 제공받을 수 있는 방법을 요청했다. 도서관이 폐쇄된 팬데믹 상황에서는 도서관에

지정 PC를 설치해 두고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의 전자정보를 이용하도록 하는 현재의 시스템은 아예 작동조차 하지 않게 되었으므로, '온라인으로 집에서 직접 자료를 이용'하지 못하는 것은 최대의 장애가 되고 있었다.

4.5.3 자료검색의 어려움, 흩어져 있는 자료, 정보원에 대한 지식 부족

인터넷 검색을 위주로 하는 해외 자료이용자들이나 부족한 한국어 능력으로 인해 한국자료를 검색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이용자들을 위해 한국자료 검색과 이용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레퍼런스 서비스가 요청되고 있었다.

한국자료 찾을 때, 혼자 스스로 하다 보니 힘들어요. 대화로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17, 중국, M대학 경영학과 학부생)

혹시 해외의 학자들을 한국자료 검색을 도와줄 수 있는 사서들과 연결시켜 줄 수 있는 방법이 있을지 궁금하다. 내가 꿈꾸는 것은 한국에 영어를 사용하는 연구자들을 연결시키는 도서관이 있어서 그들에게 나의 질문들을 보내면, 그들이 내가 연구하는 것을 도와주거나 내게 대답을 찾을 수 있는 접근 가능한 영어로 된 자료들을 알려주는 것이다. 물론 fee를 지불해야 할 수도 있지만... (#16, 미국, T대학 영문학과 교수)

영어와 한국어로 하는 인터넷 검색에서 내용의 정확성과 정보원의 신뢰성 등 평가의 어려움이 많아 한국자료에 정통한 사서의 레퍼런스 서비스 지원의 필요성도 크게 부각되었다. 또한 해외 이용자의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위해

모든 한국자료를 한 곳에서 쉽게 검색하고 접근할 수 있는 통합 도서관 자료 포털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게 나타났다.

향후 자료 지원을 위해서, 도서관이 제공할 내용으로 인터넷 포털, 한국정보가 모여 있는 포털, (대사관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한국정보에 관한 웹사이트 리스트를 제공해도 좋을 것 같다. (#10, 프랑스, M대학 아동학과 학부 교환학생)

어디서 한국자료를 찾을 수 있는지에 관해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가 존재하는지 궁금하다. 그 웹사이트는 모든 이용 가능한 한국자료를 리스트화할 필요는 없지만, 어디로 가면 그것들을 찾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면 좋을 것 같다. 이러한 웹사이트가 있으면 앞으로 한국어어 수업이나 한국문화, 사회 수업에서도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3, 미국, U대학 석사 프로그램 교환학생)

한국학 관련 데이터베이스나 학술서비스 등이 일부 중점 해외대학들에 집중되는 면이 있는데, 국내외 연구자들이나 대학(원)생이라면 소속에 상관없이 누구나 보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통합형 오픈 학술 서비스를 한국 정부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든다. (#19,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전자자원으로 제공되는 자료임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협약 기관에 국한하여 1910년 이후의 온라인 자료들(원문제공서비스)을 허용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이에 현재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자원을 해외에서 폭넓게 이용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4.5.4 언어로 인한 장벽

한국어에 능숙하지 못한 해외의 외국인 이용자들에게서 자국어 또는 영어로 번역된 자료들의 지원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후속 조사에서도 언어로 인한 장애가 가장 보편적으로 제기되고 있었다. 한국어 이외의 자국어나 영어로 자료검색이 불가능한 점, 자국어 및 영어 번역본이 부족해서 발생하는 어려움이 주로 토로되었다. 또한, 근대 초기 한문 자료나 한문이 혼합되어있는 1차 자료(신문 아카이브)의 경우 한글 표기가 제공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더 많은 한국어교재 외에, 한국 책들에 대한 영어 번역물이 많아지기를 기대한다. 한국동료나 한국친구들이 그들이 읽고 있는 흥미로운 한국 책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그것을 읽고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2, 미국, 회사원/회계사)

4.5.5 기술적 장애 / 정책적 장애

대학원생들 역시 디지털 자료이용의 확대를 희망하는데, 현재 전자책이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된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다. 예컨대, 전자책이 공급되어도 e-book 뷰어 프로그램을 설치를 요구하고 또 현재의 e-book 뷰어 프로그램에서는 여러 기능들(하이라이트, 복사, 붙여넣기 등)을 쓸 수가 없어 결국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었다. 언어 호환성 또는 한국어 검색의 불편함도 보편적인 문제였는데, 키보드에 한국 알파벳이 포함되지 않아 한국 서명 검색이 어렵고, 한글 이용자에게 로

마자화된 한국어 사용의 불편함이 크므로 한국어 검색 기능이 설치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대학도서관을 이용하면서 책의 제목이 한글이냐 로마나이제이션(romanization)으로 되어 있느냐에 따라 온라인 카탈로그 검색이 일관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책들을 찾기가 어렵다. (#4, 캐나다, B대학 박사과정)

독일 튀빙겐 대학 한국학과에서 자료를 이용할 때 한국어 DB 알고리즘에 익숙하지 않아서 충분히 원하는 자료를 찾지 못했었다...당시 DBpia나 RISS 이용을 원하면 먼저 Crossasia에서 신청이 필요했기에 접근이 더 쉬운 포털을 선호했다. 당시 한국 포털의 형식도 익숙하지 않고 한국어에 자신이 없어서 데이터베이스라면 대부분 그냥 Muse나 Jstor 같은 것을 사용하였다. (#24, 러시아, H대학 석사과정)

인터넷 보안 문제로 인한 기술적 장애는 매우 보편적인 문제였다. 한국의 포털을 이용할 경우 인터넷 안전성을 이유로 계속 휴대폰 인증을 요청해서 접근이 용이하지 않다.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는 애플/맥 컴퓨터 시스템에서 사용이 어려운 점, 자료 중 외국인 신분으로 하기 어려운 인증 문제 등 각종 기술적 어려움으로 인해 접근하지 못하고 있었다.

5. 해외 한국관련 정보이용자 지원 방안

전 지구적으로 급격히 진행되는 디지털미디

어 환경변화에 힘입어 한류 문화가 전 세계적으로 뻗어나가는 전례없는 현상 속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들의 변화하는 정보요구와 정보이용, 장애 요인을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이용자 지원 방향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5.1 정보이용 맥락에 따른 이용자 범주화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국자료 이용자들을 '한류향유 집단,' '한국어학습 집단,' '한국학연구 집단'으로 범주화하여 각 집단의 고유한 정보요구와 이용행태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먼저, 한류향유 집단은 인터넷 검색,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 음원/영상 스트리밍 서비스 순으로 자료를 검색하며, 선호하는 자료유형은 스트리밍서비스이며, '한국에 관한 최신 자료를 빨리 제공하는 것'을 선호한다. 인쇄자료보다는 일상 속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디지털, 소셜미디어를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확보한다. 이렇게 비전통적 정보자원을 일상 속에서 스스로 찾으며, 자연스럽게 한국어학습과 한국학 전공으로 이동한다.

한국어학습 집단은 인터넷 검색, 온라인 커뮤니티/소셜미디어, 온라인 학술자료, 교사 및 교수의 도움 순으로 자료를 검색하고 있다. 어학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선호하는 자료 유형은 종이책이며,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서 '온라인으로 집에서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선호하고 있다. 한류 소비 집단과 마찬가지로 인터넷을 적극 활용하면서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의 동시적 공급을 바라는 요구사항을 해외 소재 한국학도서관/자료실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의 어학학습용 자료 및 전자책을 세종학당과의 업무연계를 통해 공급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학연구 집단은 온라인 학술자료, 인터넷 검색, 종이책/종이잡지, 전자책/전자잡지 등 다양한 정보원을 통해 자료를 검색하고, 선호하는 자료유형은 종이책이지만, 이상적인 한국자료실의 조건으로서 '전자책, 전자저널, DB가 많은 것'을 희망한다. 한국어 학습 집단과 마찬가지로 기초자료조사에서는 인터넷을 우선적으로 이용하지만, 연구의 실질적인 자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자료를 가장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집단이다. 인쇄자료와 디지털 자료 모두를 활용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보다 편리한 방식으로 인터넷 학술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이들에게 한국 관련 자료들은 그 다양성이 부족하다. 특수한 연구주제의 경우, 더 많은 자료가 제공되고 인쇄자료의 디지털 아카이빙을 적극 확장해 나가는 것이 요청된다.

5.2 디지털 서비스 확장

팬데믹 이후 대학과 도서관이 폐쇄되어 웹이 유일한 자료 정보원이 되는 상황에서 전자자료의 가치와 유용성이 커지게 되므로 전자책, 전자저널, 온라인 데이터베이스 등 디지털 자원의 확장에 보다 더 박차를 가할 필요가 있다. 특히 각종 디지털 정보서비스의 고도화를 위한 요구가 다양한 측면에서 제기되었다. 그간 학술 정보자원의 디지털화가 계속 진행되어 왔지만, 현재까지도 한국에는 디지털화되지 않은 인쇄자료가 여전히 많은 것도 사실이다. 특히

전근대 역사 자료에 대한 해외에서의 접근성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한국학의 발전을 위한 한국학 관련 자료 원문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유로피아나’⁷⁾와 같은 기획을 추진하여 해외 한국학 연구자들이 자료를 쉽게 검색하고 원문을 볼 수 있는 진정한 의미의 전자도서관이 구현되어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과정에서 규장각, 한중연, 국립중앙도서관, 국립민속 박물관의 자료들과 연계하는 한편, 주요 개인 컬렉션과 대학도서관들을 결합하여 통합적인 디렉토리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자료를 찾기 위해 여러 도서관과 컬렉션들을 방문해야 하는 해외 이용자에게 큰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한국의 대학도서관, 국립도서관 자료 아카이브뿐 아니라, 개인 소장 컬렉션, 비매품 정부 출판 자료, 레코드, 미디어 회사 등에서 양산하는 상업적 출판물, 북한 자료 등 다양한 종류의 자료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인포그래픽’과 같이 학술 연구나 강의에서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자료를 수집하고 재가공해 쓸 수 있게 도와주는 정보지원방안이 필요하며, 더불어 당대의 생활방식에 대한 정보를 보존할 수 있도록 블로그, 소셜미디어 등 일시적(ephemeral) 자료를 아카이빙하는 노력도 한국을 연구하는 해외 연구자들에게 중요한 정보지원 서비스가 될 것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구축 정책은 국립중앙도서관의 인터넷 자료 디지털 아카이빙(OASIS)과의 연장선에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5.3 기술적, 정책적 장애문제 해결

디지털자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기술적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 자료의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이 150만여 점 이상의 자료를 디지털화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용자들은 여전히 국립중앙도서관 자료들의 원문 접근이 안 된다는 어려움과 불만을 토로하고 있었다.

이 문제의 원인은 디지털 자료 접근에 따르는 각종 장애 요인과 관련이 있다. 문제를 유형별을 분류하면, (1) 협약기관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되는 국립중앙도서관 원문서비스와 지정 PC에서만 가능한 원문서비스에 대한 불편함, (2) 보안시스템(주민번호 또는 휴대전화 인증)의 복잡성, (3) e-book 뷰어 활용의 불편함, (3) 디지털 아카이빙이 이미지로 제작되어 있어 텍스트 검색이 되지 않는 문제, (4) 애플 운영시스템에서 이용 불가 등의 기술적인 문제 등으로, 이들 문제는 특히 국립중앙도서관의 전자자료 컬렉션을 이용하는 데 커다란 장애로 작용하고 있었다. 디지털자료 지원 과정에서 발생하는 여러 기술 문제를 파악하고 그 해결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디지털자료의 접근성을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5.4 언어지원 서비스

한국어 자료를 해외에서 외국인들이 이용할 때는 언어장벽으로 인해 여러 어려움이 발생한다.

7) <https://www.europeana.eu/en>

다. 해결해야 할 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1) 한국학도서관에 한국어, 영어, 자국어 검색 기능 설치 지원, (2) 해외에서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비한국어 사용자들의 한국자료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도록 자료검색을 돕는 서비스 구축, (3) 한국어 자료에 영어 제목과 초록 제공, (4) 한국어 자료의 자국어 및 영어 번역물 확대, (5) 신문아카이브와 같이 한문 혼용 자료에 제공되는 한글 표기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5.5 정보자원의 고도화와 인적지원, 원스톱 쇼핑 개념의 자료제공 포털

효율적인 자료이용을 위한 '원스톱 쇼핑 플랫폼' 형태의 통합 디지털 정보서비스 사이트에 대한 요구가 높았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 한국에 관한 정보와 한국 자료들을 한 자리에서 검색할 수 있는 포털사이트와 한국 전역에 분포하는 도서관과 아카이브 컬렉션에 대한 포괄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통합 정보포털을 구축하고, (2) 'Ask a librarian'과 같은 통합참고정보서비스를 통해 인쇄자료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영어와 한국어 자료 탐색 시에도 신뢰성 높은 정보원을 안내하고, 정확한 출처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전문적 인력 지원이 필요하다.

6. 결 론

한국 역사에 전혀 없는 문화 부흥기를 맞아 한국에 대한 세계인들의 관심이 더없이 높아진

현재, 다양한 목적으로 한국 관련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층 면담과 설문조사를 통해 해외에서 한국학연구 또는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으로 정보를 찾는 사람들의 특성과 그들의 정보요구, 정보추구행동, 그리고 그 정보접근 과정에서 경험하는 장애 요인들을 탐색적으로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현재까지 해외 한국자료 이용자의 특성과 정보행동에 대해 아직 그 전반적인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을 특정 집단에 제한하지 않고 전체적 특성을 파악해 보고자 했다.

조사결과, 한국에 대한 관심은 대체로 한류 문화에 대한 관심에서 촉발되어 한국어학습으로 이어지고, 더 나아가 한국학연구로 진화하는 일종의 발전적 형태를 띠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용자의 정보요구와 정보행동 역시 그 발전 단계별로 범주화 되어 그 특성이 파악되었다. 팬데믹을 겪으면서 디지털 자료 확충과 디지털 아카이빙 확대 요구가 매우 높았고, 언어, 기술, 정책적 장애로 인한 제 문제들이 파악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해외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한국자료 지원서비스 방향을 제시하는 한편, 한국문화 확산과 한국학 발전을 위한 기반구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그 연구대상이 매우 광범위하고 자료수집 역시 편의표집방식으로 이루어진 한계를 갖고 있다. 향후 좀 더 제한된 연구범위를 갖고 보다 정교하게 설계된 후속 작업을 통해 본 연구의 결과가 검증되어야 할 것이다. 팬데믹 상황에서 짧은 기간 수행된 본 연구에 세계 52개국에서 382명의 응답자

가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은 그 자체로 한국정보자료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보여주며, 그들이 갖고 있는 정보 문제 해결에 대한 높은 기대를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관련

국가기관에서는 한국 관련 지식정보에 대한 해외 접근성을 최적화하는데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참 고 문 헌

국립중앙도서관 (2022). 도서관 협력활동.

출처: <https://www.nl.go.kr/NL/contents/N50206020000.do>

권나현, 이정연, 정은경, 장길수, 윤희진 (2013). 넷세대 이공계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의 학업 및 일상 생활에서의 정보이용과 정보기기 활용 비교분석. *정보관리학회지*, 30(2), 269-29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2.269>

김용락, 최경희, 김지연, 김아영, 김장우, 조소영 (2020). 2020 해외한류실태조사 (요약본).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김혜진 (2020). 텍스트 마이닝을 활용한 한국학 주경로(Main Path) 분석: '한국'을 키워드로 포함하는 SCOPUS 문헌을 대상으로. *정보관리학회지*, 37(3), 253-274.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253>

김훈태 (2020). 한류와 한국어교육의 관계, 그리고 미래: 학습 자료로서 한류콘텐츠의 가치, 현지 한국 전문가 양성의 중요성. *한류나우*, 34(1-2), 23-30.

목수정 (2020. 10. 8.). 케이팝이 불편해졌다... 프랑스인들이 충격 받은 이유. 오마이뉴스.

출처: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81177&CMPT_CD=MRA17

세종학당 (2022). 사업마당.

출처: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20101800>

윤은하 (2013). 해외 한국학 제3세대를 바라보며: 박사학위논문을 중심으로 (2007-2012). *역사와 담론*, 67, 113-150.

이영준 (2020). 한국학 현황과 한국문화 이해도 증진을 위한 과제: 해외 한국학 호황, 세계 문화 발전의 증거. *한류나우*, 34(1-2), 31-38.

이정현 (2009). 북미주 한국학도서관 1990-2009: 회고, 현황, 전망.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2, 1-53.

장성일 (2018). 중국에서의 한국학 연구 동향 및 전망: 연변대학교를 중심으로. *동서인문학*, 55, 177-197.

- 한국국제교류재단 (2022). 2021 한국국제교류재단 연차보고서.
출처: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do?mi=1152&cntntsId=1079>
- 한국국제교류재단 통계센터 (2022). 해외대학 한국학현황.
출처: <http://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20). 2019 한류백서.
출처: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244&page=1&find=&search=
- 한국어능력시험 (2020). TOPIK 한국어능력시험 시험 안내.
출처: <https://www.topik.go.kr/TWGUID/TWGUID0020.do>
- Chun, A. S. (2017). Information Behaviors of Users of Korean Collections: How Do They Find Needed Information?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United States.
- Hong, S. K. (2019). Geography of hallyu studies: analysis of academic discourse on hallyu in international research. *Korea Journal*, 59(2), 111-143.
<https://doi.org/10.25024/kj.2019.59.2.111>
- Khoo, C. S. G. (2014). Issues in information behaviour on social media. *Libres*, 24(2), 75-96.
<https://doi.org/10.32655/LIBRES.2014.2.2>
- Kim, K., Sin, S. J., & Yoo-Lee, E. Y. (2014). Undergraduates' use of social media as information sources. *College & Research Libraries*, 75(4), 442-457.
<https://doi.org/10.5860/crl.75.4.442>
- Yoon, T. J. & Kang, B. (2017). Emergence, evolution, and extension of hallyu studies: what have scholars found from Korean pop culture in the last twenty years. In Yoon, T., & Jin, D. eds. *The Korean Wave: Evolution, Fandom and Transnationality*. Lanham: Lexington Books, 3-21.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 Jang, S. (2018). Korean studies research trends and prospects in China: focusing on Yanbian University. *Humanities Studies East and West*, 55, 177-197.
- Kim, H. J. (2020). The main path analysis of Korean studies using text mining: based on SCOPUS literature containing 'Korea' as a keyword.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7(3), 253-274. <https://doi.org/10.3743/KOSIM.2020.37.3.253>

- Kim, H. T. (2020). The relationship between Hallyu and Korean language education and the future: the value of Hallyu content as a learning material and the importance of nurturing local Korean experts. *Hallyu Now*, 34(1-2), 23-30.
- Kim, Y., Choi, K., Kim, J., Kim, A., Kim, J., & Cho, S. (2020). 2020 Overseas Korean Wave Survey (Summary). Seoul: Korean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 King Sejong Institute Foundation (2022). Institutes Worldwide. Available: <https://www.ksif.or.kr/ste/ksf/hkd/lochkd.do?menuNo=31101100>
- Korea Foundation (2022). 2021 Korea Foundation Annual Report. Available: <https://www.kf.or.kr/kf/cm/cntnts/cntntsView.do?mi=1152&cntntsId=1079>
- Korea Foundation for International Cultural Exchange (2020). Hallyu White Paper 2019. Available: http://kofice.or.kr/b20industry/b20_industry_00_view.asp?seq=1250&page=1&find=&search=
- Korea Foundation Statistics Center (2020). Status of Korean Studies at Overseas Universities. Available: <http://www.kf.or.kr/koreanstudies/koreaStudiesList.do>
- Kwon, N., Lee, J., Jung, E., Chang, G., & Yoon, H. (2013). Comparative analyses of the uses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in the everyday life of undergraduate and graduate students majoring science and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Information Management*, 30(2), 269-295. <https://doi.org/10.3743/KOSIM.2013.30.2.269>
- Lee, J. (2009). Purpose driven progress: Korean studies librarianship in North America, 1990-2009. *Trends in Overseas Korean Studies Libraries*, 2, 1-53.
- Lee, Y. (2020). Current status of Korean studies and tasks to improve understanding of Korean culture: evidence of the boom in Korean studies abroad and the development of world culture. *Hallyu Now*, 34(1-2), 31-38.
- Mok, S. (2020, October 8). The two sides of K-pop seen in France. Ohmy News. Available: http://m.ohmynews.com/NWS_Web/Series/series_premium_pg.aspx?CNTN_CD=A0002681177&CMPT_CD=MRA17.
- National Library of Korea (2022). International Relationships. Available: <https://www.nl.go.kr/NL/contents/N50206020000.do>
- Test of Proficiency Korean (2020). TOPIK Test of Proficiency Korean Information. Available: <https://www.topik.go.kr/TWGUID/TWGUID0010.do>
- Youn, E. (2013). Toward the emergence of the 3rd generation in overseas Korean studies: the analysis of Ph.D. dissertations (2007-2012). *History and Discourse*, 67, 113-150.